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5월 14일(금)
(윤력 4월 3일)
Пятница
14 мая 2021г.
№ 19 (1193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8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1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다. <아리랑>무용단 공연.

(이예식 기자 촬영)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팬데믹 종식 이후 일본과 활발한 교류 회복 기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하코다테 지 부장이자 주삿포로 러시아 연방 총영사관에 영사 고문으로 임명된 세르게이 카스토르노브와 만남을 가진 가운데 향후 상호 작용에 대한 의제를 논의했다.

"우리는 사할린주 발전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협력할 의향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에 전망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산업과 목재 가공업이 역점 분야다. 우리가 탄소 배출 저감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일본도

이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따라서 이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지사가 언급했다.

세르게이 카스토르노브 영사는 일본도 풍력과 태양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주지사의 발언을 지지했다.

"이전의 상호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만 아니라 인도적인 분야에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자."고 세르게이 카스토르노브도 답했다.

사할린 주민 11,000명 선거 전자투표 시험에 참여

사할린주에서 '선거' 전 러시아 국가 자동화 시스템 훈련의 일환으로 4월 21일부터 원격 전자투표 시험에 참가를 위해 1만1천명이 신청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유권자들은 '선거' 국가 자동화 시스템의 유권자 등록 확인 후 3일간 '시험'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

원격 전자투표 시스템 시험 적용을 통해 등록 및 승인부터 투표 및 개표 결과까지의 모든 투표 단계가 철저히 재현된다.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빅토리아 체르카스와 위원장은 원격 전자투표 시험 시스템에 사할

린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다고 강조한 가운데 "사할린 주민의 3%가 전자투표 시스템 시험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는 사할린 주민들의 기술적 '성숙도'를 증명하는 양호한 지표이기도 하다. 우리는 독특한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격 전자투표 시스템 훈련은 사할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된다."라고 덧붙였다.

사할린과 쿠릴지역에서는 5월 12일 오후 4시부터 15일 오전 4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5천여 명 사할린 주민 온라인 '불멸의 연대' 참여

소비자보호감독청의 권고에 따라 올해도 불멸의 연대 행진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승절에 러시아 전 지역에서 '불멸의 연대' 온라인 방송이 동시에 시작됐다. '애국 행진'은 5월 말까지 계속되며, 이 기간에 주민들 각자의 영웅들을 대열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영웅들의 사진은 기획 사이트 (<https://2021.polkrf.ru>)와 소셜 네트워크 '브콘택트' 및 '야드노클라스니키'의 불멸의 연대 프로그램 항목에서, 오키(Okko),아이비루(IVI.RU), 모어티비(MORE.TV)의 온라인 상영관과 스모트림루(Смотрим.ру.)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올해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2만7천 명이 참가 신청을 제출하여 지난해부터 제출된 2만5천 명의 신청서를 합하면 5천 명이 넘는다.

올 전국 불멸의 연대 총 참가자는 5백만 명으로 작년에 2백50만 명인 데 비하면 2배이다. 참가자들은 참전용사와 후방 노동전선 참전자, 의병, 나치 수용소 수감자, 레닌그라드 봉쇄기 주민들의 사진과 정보를 올릴 수 있다. 불멸의 연대 온라인 행진이 해커들에 의한 3개의 디도스 공격과 6개 웹 공격이 기록돼 디지털 정보자원에서는 추가 보안 조치를 취했다. 해커들은 나치 범죄자의 사진을 불멸의 연대에 배치하는 도발을 시도했으나 조정자들이 막아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보가 러시아 조사위원회에 보고되었다.

단신

카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할린 학교 안전시스템 점검

지난 13일(목) 사할린주 아나스타시아 키크테와 교육부 장관은 주두마에서 학교 안전 문제로 보고를 하였다. 이는 5월 11일 타타르스탄 수도인 카잔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돼 있다. 제175호 학교를 졸업한 19세의 갈라위예브 일나즈는 무차별 총격을 하여 학생 7명, 교사 2명이 숨졌고 2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할린주 모든 학교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경비 및 보안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중이다.

하바롭스크 변경, 〈프로 극동 연방관구〉포럼 개최

2021년 제3차 〈하바롭스크 변경 - 프로 극동 연방관구〉포럼이 5월 19일에 시작된다.

이에 기업과 사회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극동지역의 수장들, 다양한 분야의 연방 및 지방의 전문가들이 극동 청년들의 전문적 자아성취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포럼의 참석자들은 극동 연방관구에서 중등 및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 노동시장의 동향, 청년 가족 지원과 노동시장의 실질적 추세에 대해 토론한다.

포럼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극동 연방관구의 미래: 청년들의 자아성취를 위한 장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는 토론이 계획돼 있다.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사할린 학생들의 최우수 환경포스터 한국 전시회로 간다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사할린주에서는 동북아 지역 환경보호 포스터 지역 경연 예선이 열렸다.

경연 대회의 목적은 '자연환경의 지킴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제작한 포스터를 전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자연환경의 문제들에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 있다.

참가 연령은 6세 -17세로 연령대별 4그룹으로 나뉜다. 경연에 사할린주 9개 지역의 학생들로부터 총36개의 환경보호 포스터가 출품되었다.

경연 결과 연령대별 1위의 수상자들은 예고르 무하체브(유즈노사할린스크, 6세-8세 그룹), 누르보우 아지모와(돌린스크 지역 소콜 마을, 9세 -11세 그룹), 율리야 타라센코와(아니와 지역 트로이츠코예 마을, 12세 -14세그룹), 알렉산드르 쿠안체브(코르사코프 지역, 15세 -17세 그룹)이다. 우승자들과 수상자들에게는 사할린주 교육부가 상장을 수여하며 우승자의 작품들은 전시회 참가를 위해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환경협력센터로 보내게 된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한인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사할린주 한인여성회 김 타치아나 신임 회장과 인터뷰

2021년 4월 9일에 열린 사할린주 한인 여성회의 결산선거회에서 사할린 한인 여성회장으로 **김 타치아나 세르게예브나**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신임 회장과 만나 자신 소개와 동 회의 사업 계획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다.

- 여성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1952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48년간 공공 주택 사업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했고, 그중 30년은 지도자(유즈노사할린스크 제9구역 단지 관리국 국장)로서 활동했습니다. 일하면서 3년제 건축전문대학(하바롭스크), 극동국립기술대학교(공공 주택 사업 분야에서 건설 분야 전공)를 졸업하고 한 분야에서만 일을 했으니 많은 경험을 쌓았지요. 그리고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 회장님께서 한국어를 배웠나요?

- 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8조선 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했어요.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일상에서 쓰는 '주방'같은 하지요.

- 회장님의 부모님께서는 고향 방문을 하셨나요?

- 저의 아버지는 1907년생이고 어머니는 1912년생이세요. 사할린(가라후토)에는 1930년 후반기에 오셨는데 아버지께서는 1953년에,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8개월 되었을 때였지요. 제가 막내거든요. 오빠 넷에 언니 하나였어요. 어머니도 다시 고향땅을 밟지 못하시고 1994년에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할린동포 1세들의 슬픈 역사적 운명이지요.

- 회장님께서 사회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와 계기는요?

- 말씀드렸 듯이 작년에 제가 은퇴를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이 한인사회계에서 활동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일을 했었고 사람들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고, 배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인사회계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몇 가지 행사에도 참여했고, 클럽 '60+' 활동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주한인여성회 회장 후보로 추천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갖고 있는 능력과 경험을 다해 노력할 생각



입니다.

- 여성회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요?

- 보니까 주 한인협회와 함께 하는 행사가 많아요. 여성회가 행사 잔치상 차림을 비롯해 주 한인협회의 거의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단체는 청년회가 이번에 주관하는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도왔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어르신들에게 식사접대를 맡았거든요. 일부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차리고, 치우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주최로 나서는 자체 행사와 기획들이 있지요. 우선 여성의 날 (3·8절) 기념행사, 그리고 매달 진행되는 <60+>클럽의 모임입니다. 2세를 위주로 하는 클럽 모

임은 앞으로 주제별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60+>클럽의 첫 야외놀이를 했었는데 날씨도 좋아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걸 준비하느라 우리 여성회 유영희(나탈리아) 부회장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1세들을 위한 그런 야외 놀이를 계획할 마음도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협회와 함께 모임도 가질 생각이고, 올해 국가두마 의원 선거에도 적극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유즈노사할린스크만 아니라 지방에서 한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 회장님의 가족에 대한 생각과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가족은 제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제게는 외동딸의 손자 둘에 손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저를 오빠들이 키웠죠. 어머니는 혼자 아이 여섯을 먹여 살리며 키우느라 고생이 진짜 많으셨어요. 한평생을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요리를 무척 잘 하셨지요.

- 회장님께서도 어머니를 따라 요리를 잘 하시는지요.

- 네, 하긴 좀 해요. 특히 우리 손자가 취미로 잘 합니다. 유전인가봐요.

- 회장님께서 사회활동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우리 남편은 잘 생각했다고 합니다. 집에 그저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희 딸도 "엄마는 적극적인 사람이고 활동을 계속 펼칠 사람."이라면서 저를 응원했어요.

- 회장님께서 어떤 성품의 사람을 좋아하시는지요.

- 착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해요.

- 회장님이 어떤 서적들을 즐겨 읽으세요.

- 보통은 소설책을 읽고, 그중 애정소설 좋아하거든요.

- 좋아하시는 색깔은요?

- 좋아하는 색은 의상에서는 흰색과 검은 색이고 생활에서는 화려하지 않은 밝은 색을 좋아합니다.

- 회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 제가 "제안이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답이 있다."라는 대답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 회장님께서 모든 일에 주도적이며 활발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성격이라 느껴집니다. 여성회장으로서 계획하시는 활동에 큰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 댄스 앙상블 '메디암' 국제 댄스 경연 대회에서 수상

'메디암' 사할린 재즈댄스 앙상블이 '댄스마니아' 국제 무용예술 경연 대회 영예의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3위를 수상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상 목록을 또 하나 추가했다.

'댄스 마니아' 국제 무용예술 경연 그랑프리 결승전은 모스크바에 러시아 루즈니키 국립 중앙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경연과 활동교실, 갈라 콘서트를 위한 대규모 종합적 종목 준비로 풍성한 프로그램이었다. 러시아의 40개 지역과 4개 국가에서 170팀 이상의 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우수팀들과 경쟁을 해야 함으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노력했다. '메디암' 앙상블은 '가무' 부문 두 개의 연령별 그룹에서 3위를 차지하여 상위 우수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승리가 더욱 값진 것은 아마추어 팀들과만 아니라 무용학교 대학생들로 구성된, 완전 전문적 무용팀들과 대결을 했다는 점에 있다.

갈라 콘서트로 대회 폐막을 장식하며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무용팀들을 비롯해 팀 지도자들이 공로에 따른 상을 받았다. 예술계 지도자로서 발레 안무가이자 감독인 정 나탈리아는 유네스코 국제무용위원회에서 국제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감사장을 받았다고 '메디암' 예술단 홈페이지에서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й ансамбль "Медиа"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ансамбль джаз-танца "Медиа" добавил к списку своих наград еще одну, став лауреатом III степени на престижном Гран-при фин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Танцемания".

Гран-при фин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Танцемания" проходил в Москве на сцен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нцертного зала "Россия" в Лужниках. Это была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с конкурсам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подготовкой сводных массовых номеров на гала-концерт. Ре-

бятam пришлось постараться, чтобы показать себя достойнейшим образом. Ведь соревноваться пришлось с лучши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отобранным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жюри из более чем 170 коллективов из 4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4 стран.

"Медиа" сумел пробиться в топ лучших коллективов, принявших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олучив диплом лауреата III степени в номинации "Эстрадный танец" в дву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Эта победа тем ценнее, что соревноваться пришлось не только с любительски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но и вполн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командами — студентами танцева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В завершение гала-концерта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где коллективы и их руководители получали заслуженные награды.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балетмейстер-постановщик Наталья Тен была награждена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и сертификатом, удостоверяющим индивидуальное членство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овете по танцу ЮНЕСКО,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коллектива.

사할린의 아동들 곁 그림 그리기 대회에 초대

사할린의 동물공원은 살아있는 자연의 사할린 집이다. 동물원의 주요 상징은 곰이다. 현재 공원에는 볼곰 와나, 마사, 울라, 히말라야 종을 대표하는 요좌가 있다.

5월10일부터 사할린 동물원에서 <동물원의 상징 - 곰> 인터넷 아동 그림 그리기 대회가 시작되었다. 7세부터 18세까지 사할린의 유·청소년들이 자신의 창작 능력과 화가로서 솜씨를 발휘하도록 대회 참가에 초대한다.

참가자들은 수채화 물감이나 포스터 컬러, 크레파스, 색연필로 그린 그림 하나를 대회에 출품할 수 있으며 그림의 주제는 '동물원의 상징 - 곰', '숲의 주인', '아트 곰', '토프티긴과 친구들(동화 속 주인공)'로 그리도록 제시했다.

참가자들의 창작 그림은 (스캔 또는 사진 형식으로) 5월 23일까지 동물원 홈페이지에 참가자가 직접 올릴 수 있다.

동물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5월 25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참가자들에게는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할 권리가 주어진다. 결과는 경연 온라인 투표를 총결산해서 5월27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 시상 날짜와

시간을 공개한다.

동물원 측은 참가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경연 주제를 주의깊게 살피길 당부했다.

전화 문의는 +7(4242) 505626, 30-37-47로.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и их медведи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ботанический парк — островной дом живой природы. Главный его символ — медведь. Сегодня в зоопарке содержатся бурые медведи Ваня, Маша и Юля,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гималайской породы — Ёжа.

С 10 мая в зоопарке стартовал интернет-конкурс детских рисунков "Медведь — символ зоопарка".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художником и проявить твор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приглашаются сахалинцы от 7 до 18 лет.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может представить на конкурс только один рисунок, выполненный в технике акварель, гуашь, восковые или меловые карандаши. Творить предлагается по следующим номинациям: "Медведь — символ зоопарка", "Хозяин тайги", "Арт-медведь", "Топтыгин и компания" (изображение сказочных персонажей).

До 23 мая включительно авторские работы (в виде скана или фотографий)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могут размести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 сайте зооботанического парка.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йдет на странице официального сайта зоопарка до 25 мая. Каждый конкурсант вправе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понравившуюся работу. Итоги интернет-конкурса будут подведены и опубликованы 27 мая 2021 года на сайте. В этот же день станет известна дата и врем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Участников просят вниматель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ложением о конкурсе на сайте, сообщает зоопарк.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7(4242)505626, 3037-47.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 스쿼트 1,500회 마라톤에 참가

1500개 스쿼트(무릎 관절을 굽혔다 펴는 운동)와 하계 활동 시작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회운동가이자 사범인 안드레이 미로슈니코프의 지도로 '폴 스쿼트(무릎을 깊이 굽히는 운동) 마라톤'을 야외 공간에서 무료로 지도하기 시작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고려' 타악기 팀, 모스크바 국제 경연-축제에서 슈퍼컵 수상

지난 5월 4-7일간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의 '고려' 타악기 팀의 어린 참가자들과 이 팀의 지도교사 신 율리아, 반주자 박완순 교사가 함께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의 국보>와 <국가 승리> 국제 경연 및 축제에 참가해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다.

이 행사는 '통합 러시아' 당 위원회, 러시아 연방 두마의회, 러시아 연방 문화부의 지원 속에 제149회 '러시아의 단결'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연 및 축제에는 러시아와 연합독립국의 50개 도시를 대표하는 1500여 명이 참가하여 4일간 무대에서 경쟁하였다. 이들은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 보컬, 악기 연주 등 부문에서 멋진 재능을 발휘하였다. 참가자들의 발표를 러시아의 교수들과 러시아 연방 문화 및 예술계 공로자들로 구성된 2개의 심사위원단이 동시에 평가하였다.

"우리 '고려' 한민족 타악기 팀은 <민속> 부문에 참가하여 판곡으로 심사위원단의 마음을 사로잡아 <러시아의 국보>와 <승리의 나라> 경연들에서 그랑프리를 거머쥐어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신 율리아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과 과장이 소감을 나누며

"두 경연에서 대상을 받은 것에 기뻐했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무대에 뜻밖의 거대한 슈퍼 그랑프리컵이 등장하여 참가자들과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가운데 우리 '고려' 팀에게 수여했습니다. 정말 많이 놀라웠고, 기뻐합니다."라고 신 율리아 과장이 기쁨에 겨워 말했다.

신 율리아 지도교사는 수천 명의 관객을 앞에 둔 무대에서 슈퍼컵과 함께 감사장도 받았다. 학생들이 느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모스크바의 흐린 날씨도, 장거리 비행의 피로도 약화시키지는 못했다.



(본사 기자)
(사진: <에트노스> 예술학교 제공)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노인정 할머니들의 어버이날 맞이

지난 8일(토) 오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노인정 할머니들을 위해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다.

림종환 회장이 어르신들에게 축하를 하고 건강과 행복을 빌며 후원자로부터 받은 금일봉을 선사했다. 이날 할머니들을 장태호 시인으로 축하했는데 어머니에 대한 금방 쓴 시를 전했다.

좁은 행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폴란코>유치원 유아들(한국어 강사 전영희)은 '곰 세 마리' 노래를 비롯해 율동하면서 여러 동요를 즐겁게 불렀고, 안 아나스타시야 지도로 시한인회 소속 장구교실의 중년 여성들이 처음으로 익힌 작품을 연주했으며 박빈시 씨의 지휘로 중창단이 부른 몇 곡의 한국 노래들은 할머니들의 마음을 완전 녹여버렸다. 게다가 어린이들과 여성분들이 큰절을 올리고, 꽃을 나눠드리자 무척 어르신들은 무척 기뻐했다.

박빈시 동포 가수가 러시아 및 한국 노래를 많이 불러 할머니들의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고, 시한인회 여성분들이 직접 차린 점심상은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었다.

다음 노인정 모임(토요일)은 2주 후라고 림 회장이 알렸다.



(본사 배순신 기자)

5월 8일은 어버이 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5월 8일 오후 3시, 어버이날에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1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다.

주최로 나선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에 따르면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300여 명의 1세 동포들이 계는데 이번 행사에 8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하게 되었으며 연세가 많고 운신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 주관으로 최근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한인청소년회(회장 이 세르게이)가 돕기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축하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잔치상 차림은 주한인여성회(회장 김 타치아나)가 맡았다.

이날 할머니들에게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비롯해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이 축하하며 따뜻한 인사와 함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1세들에 관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어르신들을 1년반 만에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어 기뻐하며 어르신들을 위해 앞으로도 한인협회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동 소장은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올해 연세가 89세가 되시는 어머니를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간 한국에 못 가서 뵈지를 못했습니다."라며 "어르신들을 뵈니까 저희 어머니를



뵈는 것 같고, 가슴이 찡 해서 좀 달래느라 혼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건강하신 모습 뵈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하루 즐겁게 지내시고, 올해, 내년, 10년, 20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병일 원장은 이날 축하 끝에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날 어르신들을 위해 미니멀 타악기팀 (코르사코브, 지도 민 왜채슬라브), <아리랑>무용단(지도 박영자), 강팔용 동포가수, 최 율리아 가수와 김웨철, 서 마리나 아마추어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했다. 한인문화센터 무대에 처

음으로 나선 한인청소년회 회원들인 오 블라디미르, 김 나탈리아 내외는 '바람이 분다'라는 한국 노래를 불렀고 김 알렉산드르 회원은 멋진 현대 춤으로 갈채를 받았다. 제1김 나지아의 졸업반 학생 배 자넷은 할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를 여린 목소리로 불러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팔용 가수가 흥겹게 부르는 노래 장단에 맞춰 자연스럽고 흥겨운 춤을 추는 것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성껏 차리는 음식을 드신 어르신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춘 후 행사장을 떠났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재외동포재단, 2021 재외동포 전문가 간담회 개최

- 5.13(목),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이후의 동포정책 방향 등 토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재외동포 유관기관, 학계, 언론 등의 전문가를 초청,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이후의 동포정책 방향, 그리고 세계시민교육과 재외동포사업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재외동포 정책과 재단 사업에 반영하고자, 5.13(목) 13:00 재외동포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온·오프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는 간담회 1부에서는 인하대 이진영 교수가 '재외동포 기본법과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 구조와 입법 방안'에 대해서, 2부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환경구 사무총장이 '재외동포교육 2.0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 대해서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한 전문가들이 질의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곤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향후 재

정될 재외동포 기본법 관련 쟁점들을 재확인하고, 현행 재외동포재단 사업 개선에 도움이 될 정책적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매년 정부부처 및 기관, NGO, 학계, 교육계, 언론계, 정계 등의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가를 초청, 재단 비전 및 사업 발전 방향과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 2020년도 전문가 간담회 시행 실적

- 2020.1.3~4., 재외동포 이해제고와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 2020.7.30., 인구문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

- 2020.9.25., 미래교육과정과 재외동포 이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Я давно уже не ребёнок,
Но в Душе все играет драма...
Протереть бы глаза мне спросонок
И увидеть, как крутится Мама...
Там, на кухне, где влажный нагаси,
Где на печке свежесваренный баб,
А на столике ложки, да хасы...
Немудрёный, бесхитростный скarb...
Я хочу слезою умыться
Перед Мамой с седой головой
И за все до земли поклониться...
Пусть ушедшей, но вечно ЖИВОЙ

В день Мамы и Папы, Тэхо Ча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08.05.2021.

Короткой строкой

Но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КЖ избрана Татьяна Ким

На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м собрани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женщины» но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единогласно избрана Татьяна Ким.

Урожен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тьяна Сергеевна Ким 48 лет своей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дала ЖКХ, из них 30 лет была руководителем ЖЭУ. Человек неравнодушный и деятельный, она вместе с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уже взялась за реализацию различных идей.

На правлении РООСК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по Уставу и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бочих групп

3 ма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очередное заседание правлен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овые члены правления РООСК, заслушан отчет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была принята к сведению информация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внеочере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для принятия изменений в Устав. Для этого решено создать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оветника РООСК О Тин Ха. Был поднят вопрос о создании комиссии по защите интересов детей, чьи родители н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правом вернуть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На правлении было также решено создать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тв. Юрий Им),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заняться претензионной работой по Мемориалу(чумогван), расположенн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экопарка.

На правлении также был заслушан краткий отчет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Ли Сергея о проводим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луб «60+» весело провел время на берегу моря

7 мая члены клуба «60+» весело провели выездное заседание на базе отдыха в Рыбацком, расположенной на берегу мор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поездки стал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женщин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СК. База отдыха «Солнечный берег» в этот день безвозмездно предоставила свою территорию 60-70 летним сахалинцам(около 50 чел.).

День родителей прове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8 ма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разднуется День почитания родителей.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азднованию этого дня стали традицией и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о сразу два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тра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родителей началось в здан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Гостей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К Лим Ден Хван и поэт Тэхо Чан. Организация подготовила для бабушек Клуба стариков праздничную программу(поздравление малышей, выступление класса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и женского хора, чтение стихов, посвященных матери на корейском и т.д., пес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от Пак Владимира) и накрыла вкусный обеденный стол. Всем бабушкам были вручены денежные конверты и гвоздики.

После обеда около 80 человек прекл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собрались в культурном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За красиво накрытым столом они приняли тепл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Ли Сергея(гл.организатор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альни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вак Ки Донга. 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К на Сахалине Ли Бен Иль сделал глубокий поклон пришедшим в Центр пожилым людям.

Праздничная программа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а силами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сами пели, танцевали. На сцене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Минимал»(Корсаков),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Ариран», красивые песни подарили Че Юлия, Ким Вечери и др. Люд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танцевали под музыкальный калейдоскоп песен, исполненных певцом Кан Петром. Помимо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жилые люди получили в подарок от РООСК любимое яство - тток(рисовые лепешки).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Этнос»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СУПЕР Гран-при фестивалей «Достояние России» и «Страна побед»

Блестящую победу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ах-фестивалях «Достояние России» и «Страна побед» одержали юные участники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Корё» МБУДО «ДШИ «Этнос», отправившиеся на майские праздники в г. Москву вместе со свои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ин Юлией Енчеровой и концертмейстером Пак Ван Су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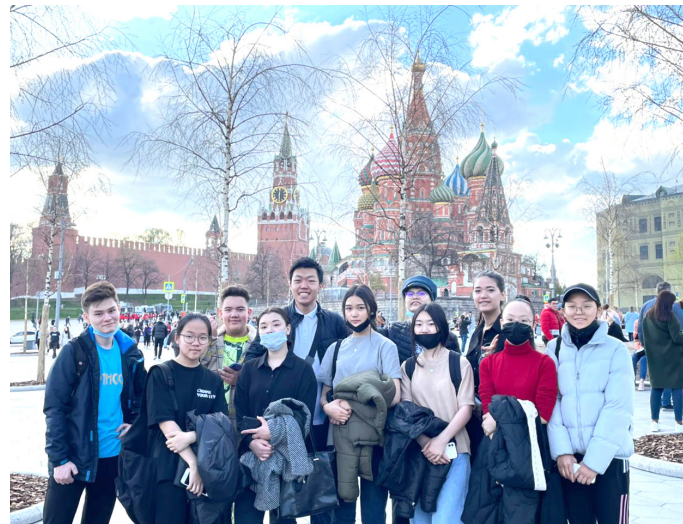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в рамках 149-х фестивальных встреч «Единство Ро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енерального совета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Ф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Ф.

География конкурса покоряла своей масштабностью: свыше 1500 участников из 50 городов РФ и стран СНГ представляли свои концертные программы в течение 4-х дней. Так и воспитанники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ДШИ «Этнос» подготовили свою композицию под названием «Пханкут», которую они исполнили также затем и на гала-концерте.

Во время выступления конкурсантов оценивали сразу два состава жюри, членами которых являлись профессора и Заслуженные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 РФ.

К нашей великой радости и гордости, члены жюри двух конкурсов единогласно признали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Корё» абсолют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фестиваля, присвоив ему звание Обладателя ГРАН-ПР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Достояние России», а также Обладателя ГРАН-ПР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Страна побед».

Счастливые и окрыленные, наши дети радовались двойной победе, но на этом сюрпризы не



закончились. В завершение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на сцену неожиданно вынесли огромный кубок - главный приз фестиваля СУПЕР ГРАН-ПРИ. К огромному изумлению детей, на глазах у тысячи зрителей, этот супер кубок вместе с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 письмом за высоко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мастерство торжественно вручили Син Ю.Е., руководителю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Корё»,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школы «Этнос».

- Это было незабываемо. Ни пасмурная погода, ни дальний перелёт не смогли сгладить неописуемый восторг, незабываемые эмоции и впечатления, которые остались у наших ребят после этой поездки,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Юлия Енчеровна Син.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школой «Этнос»)

Пограничники ставят на вооружение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оенные Южной Кореи намерены установить вдоль границы сист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радаров.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 закупкам вооружений сообщили, что с помощью систем будет легче выявлять нарушителей границы.

Радары и систем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через каждые 200 метров вдоль прибрежной пограничной линии. Собранная ими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анализироваться с помощью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распознавать потенциальных нарушителей на расстоянии до 400 метров.

В феврале сильными ветрами была выведена из строя система сигнализации и в то врем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нарушителю удалось незамеченным преодолеть заграждение из колючей проволоки на

побережье. Камер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тогда оказались без присмотра.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з-за несрабатывания системы сигнализации границу незамеченным удалось преодолеть другому нарушителю.

Военные решили основательно усилить техническое оснащение с бюджетом около 5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еще 3 миллиарда вон будет стоить новая система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US\$1 = W1 126).

«Необходимо более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для охраны границы, поскольку военные реструктурируют погранич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в связи с сокращением численност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А РУСКОР

Школы закрываются из-за нехватки учащихся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 834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школы были закрыты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май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вязи с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ью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ехваткой учащихся,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Тенденция особенно очевидна в аграрных провинциях со стареющим населением, таких как Южная Чолла и Северная и Южная Кёнсан.

Закрывшиеся школы составляют 32,7 процента от всех 11 710 начальных и средних школ в стране. Список возглавляет провинция Южная Чолла с 828 закрывшимися школами, далее следуют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Кёнсан (729), Южная Кёнсан (582), Канвондо (460) и Северная Чолла (325). На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 и Чолла приходится 64 процента всех закрывшихся школ, поскольку их население сократилось больше других.

Ожидается, что могут закрыться больше школ. Число первоклассников составило 426 646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 оно сократится до 350 000 в 2024 году и до 270 000 в 2027 году.

ИА РУСКО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ласти КНДР поддержат крестьян в сезон посадки риса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и партий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составляют планы поддержк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10 мая центральн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осветив усилия государства по поддержке крестьян в сезон посадки риса. Она назвал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сектор «передовым фронто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оскольку власти КНДР обещают увелич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зерна в условиях хронической нехватк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с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рилагают усили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сектора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удобрениями и другими материалами, а необходимые трудовые кадры мобилизуются для участия 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аботах, - сообщает газета.

Прошедшие полную вакцинацию получили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самоизоляции

С 5 мая лица, прошедшие полную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освобождены от 14-дневн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при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из-за рубежа и после контакта с заражёнными. Условиями для освобождения являются отрицательный тест на наличие вируса и отсутствие симптомов респиратор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Новые правила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ко всем лицам, прошедшим оба этапа вакцинации не менее чем за две недели до въезда. Статус прохождения вакцинации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либо в свидетельстве о вакцинации, либо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истем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14-дневную самоизоляцию должны проходить лица, имевшие тесный контакт с заражённым COVID-19. Остальные контактные лица попадают в группу ак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 наличие температуры или других респираторных симптомов. Однако теперь лица, прошедшие вакцинацию, будут сразу попадать в группу ак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При наличии двух отрицательных PCR-тестов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они исключаются из этой группы.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самоизоляции не касается лиц, прибывших из ЮАР, Малави, Ботсваны, Мозамбика, Намибии, Танзании, Бразилии, Суринама и Парагвая, где обнаружены мутировавшие штаммы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5 мая,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14-дневной самоизоляци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60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о конца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вакцинировать не менее 70% населения для выработки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жители страны достаточно настороженно относятся к вакцинации из-за возможных побочных эффектов.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ов, в конце апреля лишь 61,4%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его населения выразило желание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За месяц до этого аналоги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был на 6,6% выше. Пока оба этапа вакцинации прошли лишь 298 тысяч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Парламентарий от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ак Ён Чжин выдвинул свою кандидатуру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50-летний Пак Ён Чжин заявил 9 ма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2022 году. Он первым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ил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ост след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двух сроков подряд пообещал открыть новую эпоху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и стать самым молодым президентом, создавшим «счастливую нацию». Пак Ён Чжин пообещал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с недвижимостью, которая стала источнико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недовольства и разочарования, а также создать стабильн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Кроме того, он обещал заменить систему обязательного призыва в армию на службу по контракту.

В связи с COVID-19 количество браков в РК достигло рекордного минимума

Вдобавок к значительной убы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стране также наблюдается сниж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браков.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бщее число браков за прошлый год составило 214 тыс., обновив предыдущий рекордный минимум. Показатель сократился на 10,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Это самый большой спад за последние 49 лет с 1971 года. Подобное снижен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9 лет. Среди основных причин выделяют такие факторы, как сокращ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возрасте от 30 до 39 лет, изменение взглядов на брак, а также вопрос затрат на жильё и образование. Также в связ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в прошлом году люди чаще откладывали свадьбу. Количество браков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снизилось на 35%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что также связано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на въезд в страну из-за COVID-19. Количество разводов сократилось на 3,9%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впервые за три год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тенденцию к снижению. При этом возросла доля разводов среди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живших в браке 20 лет и более. (RKI)

Памяти приморского пограничник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город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мемориальной доски в доме на ул. Пограничной, 24, где проживал советский разведчик, участник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борьб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Сон Гав Гю Василий Семенович.

Инициатива городского Совета ветеранов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корейцев г. Находки» установить памятную доску на доме, где жил находкинский герой, нашла поддержку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ходк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 Василий Семёнович был удивительным человеком, это наш земляк, наш герой, — сказал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в ходе открытия глава Находки Тимур Магинский. — Василий Семёнович был участнико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мы, нынешнее поколение, с особой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вспоминаем подвиг наших предков,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сейчас живём под мирным небом.

О жизни и работе Сон Гав Гю собравшимся рассказал ветеран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полковник Валерий Иванович Мелентьев, лично знавший героя.

Удивительна судьба Василия Семёновича, прошедшего путь от простого парнишки из 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 до майора пограничных войск КГБ СССР. Василий Семёнович родился в 1913 году. В детстве и юности ему довелось учиться в китайской и японской школах, сначала в Маньчжурии, а затем в Корее. Поэтому он хорошо знал эти языки, что сказалось на военной карьере в будущем.

В довоенное время он сотрудничал с пограничными частями, участвовал в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операциях. А в 1942 году был включен в состав Хасанского пограничного отряда. Был переводчиком 59-го пограничного отряда НКВД Приморского округа, принимал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участие в боях против Квантунской армии, совершил подвиг,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был уничтожен японский опорный пункт «Тхори» и открыт путь советским войскам в Корею. Тогда молодой пограничник-разведчик получил тяжелое ранение от противотанковой гранаты. Последний осколок вышел спустя



многие годы после войны. Взятие «Тхори» и участие в нём Сон Гав Гю подробно описано в книге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мирное время Василий Семёнович служил на погранзаставе Овчинниково Хасанского района, а впоследствии — в 59-м погранотряде. Вышел в отставку в 1972 году в звании майора. Награждён орденами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II степени,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медалями «За боевые заслуги», «За победу над Германией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г.», «За победу над Японией», медалью КНДР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и другими почётными наградами.

Константин Ким (ИА РУСКОР)
по материалам PrimaMedia и пресс-служб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ходки

Работа за рубежом теряет свою был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е зарубежные вакансии, о которых мечтали многие южнокорейцы, быстро теряют сво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ввиду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Федерация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Кореи недавно опросила 300 экспортеров и 84 процента респондентов сказали, что у них возникли проблемы с зарубежными операциями и в 38 процентах случаев они связаны с размещением персонала за рубеж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рупной IT компании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был направлен в Китай на четыре месяц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его пребывание там превратилось в кошмар. В течение трех месяцев он должен был находиться в номере отеля или в офисе и еще месяц пробыть в карантине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домой.

«В прошлом нужно было побороться за командировки за рубеж, но сейчас та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уже не привлекают», — сказал он. — «Сейчас никто не хочет ехать даже в США или Европу».

Гла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стали опасения COVID-19 или условий локдауна. Многие страны,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Тайваня и Израиля, все ещ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более опасными, чем Южная Корея. Группы южнокорей-

ских рабочих на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в Польше, России, Саудовской Аравии и Объединенных Арабских Эмиратах проявили положительные тесты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ерсонал инженерного проекта в Ираке был срочно эвакуирован после зараж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рупной 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сказал: «Существуют больше опасений не получить должное лечение, чем заразиться вирусом. Наши рабочие за рубежом умоляют нас вернуть их домой, а здесь никто не хочет ехать за границу, что вызвало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Большинство стран помещают визитеров под двухнед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а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в Южную Корею они должны проходить все вновь. Многие также опасаются актов насили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зиатам, что недавно происходило в США, где некоторые уверены, что COVID-19 был создан азиатами.

Большинство бизнесменов сейчас вынуждены осуществлять зарубеж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через видео конференции и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я удаленно, что, как ожидается, снизи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сылать персонал за рубеж. ИА РУСКОР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Полигранд"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онлайн»

В этом году по рекомендациям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шествие снова прошло в виртуальном формате. В День Победы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чалась трансляция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онлайн.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шествие» продлится еще до конца мая – за это время каждый сможет увидеть своих героев в строю.

Портреты транслируются на сайте проекта <https://2021.polkrf.ru>, в мини-приложениях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ВКонтакте и Одноклассники, а также в онлайн-кинотеатрах Okko, IVI.RU, MORE.TV и на платформе Смотрим.ру.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дали около 2,7 тысяч заявок, еще 2,5 тысячи анкет остались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строю «прошествовали» более 5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 к 2,5 миллиону анкет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бавились еще столько же в этом.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разместить фото и информацию о своих ветеранах, участниках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партизанах, узниках фашистских концлагерей, жителях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На цифровых ресурсах были предпринят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сайт онлайн-шествия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массивные атаки – 3 DDoS-атаки и 6 веб-атак.

Модераторы также пресекли ряд провокационных попыток размещения в строю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портретов нацистских преступников. Данные о приславших их людях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в След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Росси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ыбирают объекты дл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Более 16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и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Оно продлится до 30 мая.

Особую активность проявляют жители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 проголосовали 2772 человека.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выбираю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абережной на берегу залива Терпения.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находит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830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квера Авиаторов. Еще 664 человека выбрали территорию, расположенную восточнее пересечения улиц Пограничная и Комсомольская. За сквер около здания бывшей мэрии Тойохары проголосовали 328 человек.

Закрывает тройку лидеров Холм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Свои голоса там отдали 1644 человека. Из них 1226 выбрали территорию, прилегающую к плавательному бассейну в районном центре.

Отметим, в ходе голосования пользователь может выбрать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по его мнению, нужно благоустрои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оголосовать можно на портале <https://65.gorodsreda.ru>,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ись через подтвержденную запись в Госуслугах или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а также на самом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ыставлено 43 проект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определено в среднем по две – три территории. К примеру, в селе Чехов собираются благоустроить площадь, а в селе Новое – территорию по школьной аллее. Курильчанам предлагается проект детского парка «Рыбацкая деревня» и дог-парка. А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образить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Голосование стартовало 26 апреля и продлится до 30 мая. Результаты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в июн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наберут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голосов по итогам голосования, попадут в адресный перечень территорий дл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2022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намерены расширить географию поставок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Поручение доставлять 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свежие уловы в селах д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провели опросы среди жителей и услышали сигнал, что с поставками рыбы есть сбои.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айонных центров наладили еженедельные поставки минтая, камбалы, трески. Теперь необходимо организовать реализацию рыбы в селах. Жителям не всегда удобно добираться в райцентр,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осуществляют прямые поставки с места вылова в 16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региона. В Ногликском и Охинском районах реализация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стартует в мае-июне, когда начнется промысел.

– В апреле к проекту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мирныховский, Тымовски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На городской площад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еженедельно бесплатно раздают рыбу всем желающим. В Кури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ая рыба реализуется в постоянном режиме при заходе судов с промысла.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ся спрос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В райцентре и Шахтерске за два дня реализовали 1,4 тонны рыбы,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еализовали более 55 тонн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В проекте уча-

ствуют девять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реди них – ООО «Прибой-Восток», ООО «Невод», ООО «Зюйд-Вест», ООО ПКФ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ыбокомбинат»,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ыбак», ООО РК «Островной», АО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я база сейнерного флота», ЗАО «Курильский рассвет», ООО «Алаид».

Предприятия по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обла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реализуют продукцию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Так, камбалу продают по цене от 28 до 8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минтай – от 40 до 90 рублей, треску – от 37 до 90 рублей, сельдь – от 33 до 45 рублей, мойву – от 30 до 80 рублей. Цена зависит от удаленности района доставки. Стоимость замороженной рыбы в магазинах в полтора-два раза выше.

Приобрести дары моря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можно на ярмарочных площадках и в социальных магазинах.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наладить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работу: своевременно сообщать жителям о времени и месте продаж. Сахалинцев из льготных категорий оповещают по телефону.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https://www.instagram.com/agent_ribalka65.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принимает форум ProДФО

Третий в 2021 году форум «ProДФО –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стартует 19 мая. Федеральны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эксперты из разных сфер, главы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бсудят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молодежи.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обсудят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среднего специального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ДФО, состояние рынка труда,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ых семей и существующие на рынке труда тренды. Кроме того, им предстоит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о том, как удержать молодежь, какую роль она играет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региона, какие есть особенности в подготовке кадров для ТОРов и предприятий ДФО.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форума станет пленарная дискуссия «Будущее ДФО: как созда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еж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можно как онлайн, так и офлайн. Регистрация доступна по ссылке: <https://synergy.online/lp/prodfo2021/khabarovskiykrai/>.

Все сесси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открытом формат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задать вопросы спикерам и высказать свое мнение.

Справочно: «ProДФО» – это серия уникальных онлайн-форумов, где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власть, население, эксперты и СМИ открыто и неформально обсуждают темы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новые вызовы, стоящие перед ними, проблемы регионов ДФО и вместе ищут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Все форумы посвящены разным темам, основанным на самых острых для ДФО вопросах и проблемах. Они проходят почти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частниками форума станут губернатор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федеральны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эксперты из разных сфер,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журналисты и блогеры.

Трансляция форума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на цифровой платформе Synergy.Online,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и видеохостинге YouTube.

Организаторы серии форумов ProДФО – Аппарат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Фонд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и Корпорация «Синергия».

В школе села Углезаводск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открыл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й кабинет

Ранее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боту зубного врач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поруч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 так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губернатору сообщили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проходить лечение в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м кабинете смогут ученики местной школы, а также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ого сада. Также там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малыш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из села Покровк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щать зубного врача появилась почти у 40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Долинской ЦРБ Валерий Шарыкин.

В кабинете работает стоматолог из Долинской ЦРБ. Приемы организованы 2 раза в неделю. Специалист уже провел первый осмотр. Его прошли 54 школьника. По каждому составлен план лечения.

– Очень рада, что в нашей школе теперь есть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й кабинет. Сильно этого ждали, поскольку каждый раз возить сына на лечение зубов в Долинск – крайне неудобно. Понравилось, как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Заранее предупреждают, когда приедет врач. Спрашивают разрешение на лечение ребенка. Все строго по правилам,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мама одного из школьников.

Для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го кабинета выбрали ранее неиспользуемое школой помещение. В нем сделали ремонт, установили современную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ую

установку, приобрели расход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инструменты. Деньги на эти цели направил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омним, ране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ую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ую помощ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жители Ноглик.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региональному минздраву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связанную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услуг по лечению зубов в северном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О ней губернатору рассказали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жителями района –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чтобы вырвать зуб, люди е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итуацию в районной ЦРБ оценит хирург областной стоматологи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туда командировать врача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а также займется поиском стоматолога, который будет трудиться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Также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решат вопрос закупки необходим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пандемии рассчитываем восстановить актив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Японией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третился с Сергеем Касторновым, который назначен на должность консула-советника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Ф в Саппоро, руководителя отделения в Хакодате.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повестку будущ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 У нас большие планы по разви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безусловно, мы открыты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мы видим боль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соседями. Это касае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отраслей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деревообработки. А поскольку мы активно входим в проект по снижению углеродного следа и знаем, что Япония тоже в этом край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считаем необходимым плот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ргей Касторнов поддержал главу региона, упомянув о том, что Япония особенн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развитии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нергетики, прежде всего, ветровой и солнечной.

– Будем прикладывать все возможные усилия, чтобы не только восстановить прежние объе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о и развивать их в различ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Это касается не тольк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ы, но и гуманитарной, – поделился дипломат.

Отметим, Сергей Касторнов имеет большой опы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Он участвовал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а потом и возглавлял отдел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тем 10 лет возглавлял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МИД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ле – долгое время работал в Японии в Генеральном консульстве РФ в Саппоро и в посольстве России в Токио.

Проблемный участок дороги на холмском перевале планируют передать в федер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азработало проек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участка дороги, на котором ранее происходили оползневые процессы. Дл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работ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средства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Холмский перевал, безусловно, важный участок дороги. Он ведет к главным «морским воротам» Сахалина, через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т основной грузопоток. Наша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комфортный и, прежде всего, безопасный проезд.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ускорить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боту по передаче этого отрезка пути в федер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редполагает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На первом – предусмотрены работы по разборке оползневого склона сопки с вывозкой грунта к подножию полигона твердых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Чтобы отвести поверхностные и грунтовые воды,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ложить железобетонную трубу длиной 240 метров по руслу ручья.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выполняются работ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склона путем укладки грунтовых обойм, что позволит в дальнейшем восстановить верховой участок автодороги. На завершающей стад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го покрытия и обустройство участка дороги.

– На реализацию всего проекта реконструкции участка необходимо 2,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Мы отправили на рассмотрени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дирекцию Росавтодора проектно-сметн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Минтранс РФ направлено предлож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передаче участка дороги в федеральную собственность,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Напомним, с 2018 по 2020 годы на Холмском перевале происходили оползневые процессы, спровоцированные размещением на неустойчивом откосе отходов городской свалки. В аварийном порядке выполнялись работ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поврежденного полотна. На участке установлены контрольные маяк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регулярно отслеживать движение оползня. В случае обнаружения повреждений на автодороге принимаются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의 벚들 판소리에 매혹되다

(전호의 계속)

그녀의 목표는 '흥부가'를 완벽하게 부르는 것을 넘어서 세 시 간이 걸리는 전곡을 공연하는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 아이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것도 꿈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판소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 한다. "과리에서 저는 종종 우울했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하지만 판소리를 부르면 제 마음이 아주 선명해지는 걸 느껴요.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이 아름다운 음악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한다. 마포 씨는 매일 엄마와 애길 나누는데 어머니는 매번 좋은 남자를 만났는지 묻는다. 그때마다 그녀는 "아직요."라고 대답하고 있다.

때때로 한국어와 불어를 섞어 공연을 하는 마포 씨의 꿈은 언젠가 판소리를 불어로 완창하는 것이다. 한국 고유의 민속음악인 판소리를 불어로 노래하기가 쉽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다.

팬데믹의 해

2020년은 마포 씨에게 특히 어려운 해였다. 공연은 허락되지 않았고 그녀의 비자로는 예술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 '로르랑 아리랑'과 스승의 수업을 불어로 번역해 내보내는 '봉주르 판소리'를 통해 청중을 만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을 하지 못하니 수입이 없다. 그럼에도 마포 씨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살고 있는 하숙집 주인은 돈을 받지 않고 그녀가 필요한 것을 조달해 주면서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대 공연을 위해 마포 씨에게 한복을 선물하기도 했다. 마포 씨는 그런 그녀를 언니라고 부른다.

마포 씨는 한국어의 존칭어나 관계어가 가끔 혼란스럽긴 하지만 사람들 덕분에 한국에서의 경험은 대체로 좋았다고 말한다. "과리의 한국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살 곳을 찾거나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일에 도움을 주었어요." 라글레트 치즈나 후식 케이크인 에클레어 같은 맛있는 프랑스 음식을 그리워하긴 하지만 이를 대체할 자기만의 한국 음식을 찾기도 했다. 한국인들이 숙취용으로 좋아하는 곰탕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2020년의 모든 것이 음울한 건 아니었다. 마포 씨는 명망 있는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 꿈을 이뤘다. "또 학생이 되고 모든 것을 번역해야 하는 일"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녀는 아주 기뻐다. 진짜 걱정거리는 학비다. 살면서 처음으로 돈에 쫓돌리게 되었다고 그녀는 말한다.

"무대에서 공연할 때 청중이 저를 판소리를 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판소리 소리꾼으로 봐주기를 바라요,"

후회는 없다

하지만 마포 씨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단 한 번 자신의 선택을 의심한 적이 있다. 일 년에 두 번 하는 집중 판소리 훈련인 '산(山) 공부'를 처음 했을 때였다.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훈련을 했어요. 연습하고 먹고, 연습하고 먹고." 그녀는 당시를 떠올렸다. "스스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와, 내 판소리가 정말 좋아졌네'라고 했죠." 산 훈련이 제대로 된 목소리와 복잡한 기술을 익히는 데에 필수적이었음을 그녀는 인정한다.

마포 씨는 또 다른 포부를 갖고 있다. 판소리를 불어로 부르는 것이다. 때때로 한국어와 불어를 섞어서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진다. "한국어로 부를 때의 기술은 달라요."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한국어로 노래할 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불어로 노래하면 그냥 노래 같아요. 불어로 부를 때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고 싶어요." 어떤 언어로 노래를 하든지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다음 문장에 집약되어 있다. "무대에서 공연할 때 관중이 저를 판소리를 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판소리 소리꾼으로 봐주기를 바라요."

그녀는 올해 무대에서 다시 공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흥부가'를 완전히 익힌 후에 좀 덜 알려진 '수경낭자'로 넘어가는 것도 목표이다. 사랑 이야기인 '수경낭자'는 오늘날에는 단지 몇 명의 소리꾼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데 민혜성 씨도 그 중 한 명이다.

"언젠가 한 사람만이라도 제가 스승님이 판소리하는 걸 들었을 때와 같은 느낌을 갖고 '와, 나도 판소리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마포 씨는 기대에 차서 말한다.

조운정 프리랜스 작가, 번역가
(계간 Koreana, 2021년 봄 제34권 1호)

재외동포재단, 중남미 지역 한인회장들과 제6차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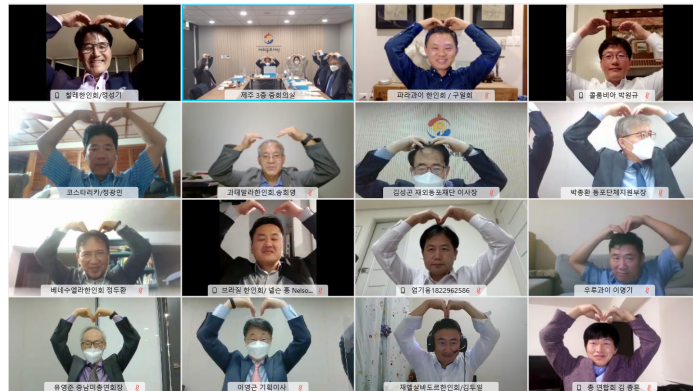
- 중남미 지역 11개 한인회장과 동포사회 주요 현안 협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중남미 지역 동포사회 주요현안 협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5.10(월)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영준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장을 비롯해 브라질, 멕시코,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 11개 현지 한인회장이 참석하여 동포사회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한인회장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재외국민 백신 접종, 자가격리 기간 단축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칠레, 콜롬비아 등지에서의 반정부시위로 동포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재단에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동포사회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문대, 사할린 동포 어르신에게 감사의 카네이션 전달

신문대학교(총장 황선조) 학생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천안·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2021년 4월 현재 전국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는 약 2,500명으로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 서천 지역에 218명의 거주중이다.

사회봉사센터(센터장 윤운성)는 유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30여 명과 함께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기념식을 준비했다. 사회봉사센터는 카네이션 코사지를 처음 보는 유학생들을 위해 만드는 법을 교육하고, 200여 개를 제작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버이날 기념식은 취소하고 대상 어르신 151명 중 10명만 초대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참석 못하신 141명의 어르신은 재학생이 소수로 조를 편성해 가정을 방문하며 카네이션과 미역, 떡 등의 선물을 전달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호는 미포지조 주레스(국제관계행정학부, 2학년, 아프리카)는 "자녀들과 떨어져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카네이션



을 달아드리면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한국의 '어버이 날'을 맞아 자녀가 그리운 어르신들과 유학생할로 엄마, 아빠가 그리운 내가 서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운성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

할린 동포 어르신을 다 같이 모시고 제대로 대접해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고국으로 돌아와 연고도 없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텐데, 신문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신문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사할린 동포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써 사할린 한인 이주 역사 특강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할린 현지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일보)

코이카, 타슈켄트 정보통신대에 통합교육정보화시스템 구축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교 통합교육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보급 지원사업' 일환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고등교육 기반 마련을 가을부터 온라인 수강신청 가능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에 통합교육정보화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월 10일 밝혔다.

이번 통합교육시스템 구축은 코이카가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00만불을 투입해 시행 중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정보통신대학교 통합교육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보급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코이카는 우즈베키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역량 강화 및 고등교육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타슈켄트정보통신대의 타슈켄트 본교와 사마르칸트 분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코이카는 그간 이 사업을 통해 ▲통합교육정보화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스템 설계와 개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본교와 분교에 서버룸 및 멀티미디어실 구축 ▲관리자와 개발자 연수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학습관리시스템, 학생정보시스템, 포털시스템이 구축됐다.

현재 시스템은 지난 3월 내부 교직원 대상 시스템 이해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개통식 이후 시범 운영 중이며, 2021년 가을학기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수강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보통신대학교가 직접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인 유니온/다인리더스에서

는 향후 1년간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

지난 5월 7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잠시드 에감베르디예프 우즈베키 정보통신부 차관,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 바바호자예프 사르바르 총장과 타셰프 커밀 부총장, 박순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사무소장, 사업수행기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타슈켄트 정보통신대 사마르칸트 분교 교직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박순진 코이카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은 "대학 내 온라인 학습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통합교육시스템이 구축돼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선제적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이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해 정보통신대학교의 분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이 디지털 경제전략 2030을 수립해 디지털경제 발전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대학 및 IT 기관 중심으로 디지털경제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보통신대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IT 비즈니스 교육 분야 교수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대학 내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75분 스쿼트 마라톤 참가자들은 하체로 버티며 대퇴부를 무릎 깊이 내리는 동작을 반복했다. 스쿼트 마라톤의 참가자 중 한 명이 초보자였고 대부분은 훈련을 받은 자들로서 충분히 이런 동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공공 체조 훈련 교습은 겨울 내내 실내에서 진행했었고 이제는 야외 공간에서 실시한다. 따뜻한 날씨가 되면서 스포츠 및 체조 애호가들은 '산타' (벤스카야 거리, 5)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실시한다.

스쿼트 마라톤 시작에 앞서 '루스키 테렘'양상블의 환호를 받으며 행사 진행 중 사할린주 올림픽위원회가 후원하는 경품 추첨을 비롯해 도예교실, 꽃꽂이 교실, 샌드위치와 요리 실습도 진행되었고 마지막에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시즌 개막일에 헬스 철봉 장비를 시에 기증하여 체육인들은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배구장에 이를 설치했다. 이로써 야외 체력 단련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며 여름과 가을에 고무줄을 이용한 체조 교습도 계획돼 있다.

이 모든 체조 교습은 무료이다. 안드레이 미로슈니코브가 주관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체조 교습 기획은 '러시아의 건강한 도시들' 전 러시아 경연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었다.

Южносахалинцы присели 1500 раз

1500 приседаний и открытие летнего сезона — в Юж-

но-Сахалинске с марафона "Глубокий сед" стартовал цикл бесплатных тренировок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тренера-общественника Андрея Мирошникова. 75 минут участники марафона по-честному приседали, не в обычной технике (до параллели), а глубоко, чтобы бедра опускались ниже коленей, с задержкой в нижнем положении. Среди марафонцев был только один новичок, большинство уже натренировано и достаточно свободно может позволить себе такие нагрузки. Занятия по ОФП проводились всю зиму, в зале и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Теперь же, с наступлением тепла, любители спорта и физкультуры переместились на площадку на "Санте" (улица Венская, 5).

Перед началом марафона участников взбудрил ансамбль "Русский терем", в процессе приседаний проводилась лотерея с призами от олимпийского сов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нчарной школы, цветочной студии, бургерной и кулинарного цеха, а по окончании всех ждал чай с угощениями.

В день открытия сезона презентовали подарок городу — шведскую стенку с турниками. Ее спортсмен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понсоров установили на волейбольной площадке напротив аэротрубы. Теперь тренировки на улице будут разнообразнее. В план на лето и осень включены занятия с резиновыми жгутами. Как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они бесплатны.

Проект, включающий в себя бесплатное проведение тренировок для всех категорий населения, координ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Андрей Мирошников, вошел в тройку призер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Здоровые города России".

(с 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한국 김포시에 게시는 허남훈님께 드리는 축하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85회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일도 많이 하시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뭐니뭐니 해도 건강을 챙기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딸, 아들, 손녀들

허남훈 선생님께서는 저희 신문을 거의 첫해부터 계속 구독해주시는 우리 신문사의 자랑스러운 애독자십니다. 오랫동안 한민족지 통신원으로 활동하셨고 수많은 기사를 투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에너지가 넘치시는 허남훈 선생님께 강건함을 기원하며, 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행복한 여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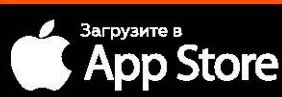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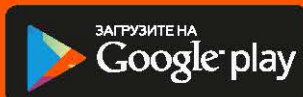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